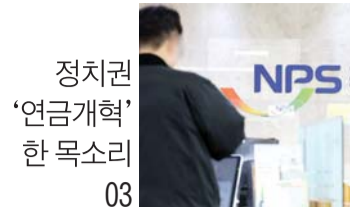


5일 Market Index	
코스피	2509.27 (+27.58)
코스닥	730.98 (+11.06)
금리 (연이자율)	2.578 (-0.006)
환율 (원/달러)	1444.95 (-17.95)



## 주총 앞둔 산업계, 경영권 다툼 치열한 포대결 예상

고려아연·티웨이항공·아워홈 등 주요 상장기업 경영권 다툼 주목  
오너가 지분을 감소로 분쟁 늘어 승자의 저주 등 경영 안정성 우려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임박하면서 경영권 분쟁중인 기업들의 공격과 수성전이 격해지고 있다. 특히 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그 양상도 첨예해지고 있다.

수십년간 이어진 동업 관계를 끝낸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을 비롯해 일부 기업들은 경영권을 두고 더욱 격렬하게 포대결을 펼치는 등 주요 경영 사안을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총시즌의 가장 관심을 끄는 경영권 다툼은 고려아연이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업체를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와의 경영권 싸움이 반전에 반전을 이어가고 있다. 티웨이항공의 경영권을 둘러싼 대명소노그룹과 예림당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대명소노그룹은 지난해 7월부터 JK I과트너스가 보유한 티웨이항공 지분을 사들이면서 2대 주주에 올랐다. 1대 주주인 예림당과 지분율 차이는 3.3% 포인트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서는 대대적으로 경영권 확보를 예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내 2위 단체급식 업체인 아워홈의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그룹 3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이 경영권 인수에 뛰어 들었다. 2020년

사모펀드에 단체급식·식자재 부문인 푸디스트를 매각했던 한화가 단체급식 시장에 재진출하는 이유는 단체급식업이 알짜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영권 분쟁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2세 경영 이후 희석된 오너가의 지분율과 사모펀드의 입지 확대, 개인 주주 증가와 행동주의 펀드 증가 등이 있다.

실제 고려아연 지분은 영풍·MBK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영풍·MBK 연합이 높다. 근본적으로 경영권을 권 오너가의 지분율이 취약하기 때문에 '동업 의식'이 흔들리면 언제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여기에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사모펀드가 경영권 분쟁에 합류하면서 판도가 바뀌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오너 경영에서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기업의 경영 철학은 물론 정체성까지 혼란을 빚어왔다. 사모펀드는 보통 5년 내외의 기간에 투자자들에게 이익과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한 단기적 수익 확대에 집중한다.

MBK는 2023년 ING생명을 인수하면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해 고용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도 안 돼 대규모 인력 감축과 함께 5년 만에 2조 원을 남기고 회사를 팔아넘겼다. 2015년 휴플러스 인수 당시에도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점포 폐쇄와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또 경영권 분쟁을 치르면서 일부 기업들은 '승자의 저주'를 겪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쟁에서 카카오가 승리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 과정에



**대학생 등록금 인상예 반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전국 대학 190개 대학(사립 151개·국공립 39개) 중 54.2%에 해당하는 103개교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다. 등록금 인상은 사립대 중에서는 94개교가 인상하여 62.3%였고, 국공립대 중에서도 9개교(23.1%)가 등록금을 올렸다. 인상률은 '5,00~5.49%'가 47개(45.6%)로 가장 많았다. 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내 게시판에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관련기사 L7면) /뉴시스

서 생긴 일로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 기소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작년 말 MBK 개입으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겪은 한국엔컴퍼니(한국타이어)의 경우 투자자 피해도 있었다. 평소 1만3000~1만4000원 안팎이던 주가

가 2만2000원대까지 치솟았는데, 공개매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가가 1만5000원대로 내려앉았다. 당시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소비자물가 2.2% ↑ 6개월 만에 '최고치' 휘발유값 9.2% 올라

지난해 하반기 잦아드는 듯했던 물가 오름세가 다시 거세졌다.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 등의 여파로 올해 첫 달 소비자물가가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에는 세종이 상승률 1위에 올랐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2%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소비자물가는 작년 7월을 기점으로 8월 +2.0%과 9월 +1.6%, 10월 +1.3% 등으로 내려앉았으나 이후 11월(+1.5%)과 12월(+1.9%)에 둔화·하향흐름이 멎었다. 이어 올해 1월에 5개월 만에 처음 2%대로 올라섰다.

부문을 보면 석유류가 전년동월 대비 7.3% 뛰면서 전체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이 중 휘발유 값은 9.2% 상승했다.

또 채소류(+4.4%), 축산물(+3.7%), 외식(+2.9%), 가공식품(+2.7%), 수산물(+2.6%) 등도 평균을 웃도는 상승폭을 보였다. 채소류 중엔 무가 79.5%, 당근이 76.4%, 배추가 66.8% 치솟았다. 이 밖에 보험서비스료(+14.7%), 지역난방비(+9.8%), 돼지고기(+8.4%), 도시가스(+6.9%)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소비자들이 흔히 구입하는 생필품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밥상물가와 연관된 신선식품지수는 0.7%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7% 뛰면서 17개 시도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와 인천, 강원, 전북이 +2.4%로 공동 2위에 자리했다. 서울(+2.0%)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제주(+1.8%)는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이무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는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전월보다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생필품 가격은 11월, 12월의 환율 상승이 반영된 거 같다. (향후) 가공식품과 외식,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34조 규모 배터리·바이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정부, 美 트럼프 관세정책 대응 기금 신설 방안 3월 국회와 협의  
이달 중 'AI 3대강국 도약'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규모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두 배인 34조 원 이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전쟁'이 막이 오르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또 정부는 인공지능(AI) 경쟁

력 확보를 위해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 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관이 함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반도체산업협회장, 배터리산업협회장,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자동차모빌리티협회장, 철강협회 부회

장, 산업연구원장 등 5개 산업협회장도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기금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기금은 약 17조원 규모인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두 배 규모인 34조원 이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저리대출, 지원 투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이 포함된다.

또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최 권한대행은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AI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AI 플랫폼 '딥시크'의 파장으로 한국 AI 산업이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중국가 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2면에 계속) /서연지 기자 sj@

### 메트로 한줄뉴스



- ▲尹 변호하는 배보윤·도태우, 알고보니 現 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
- ▲이재명 "국민의힘·윤석열, 내란 '한 여름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고 하나" (사진 뉴시스)

- ▲ 권영세, 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에 "재판 늦추기 목적"
- ▲ 여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윤, 현재 불법 구금 상태... 즉각 석방하라"

- ▲ 김부겸·김경수, 이재명에 "상처받은 분들 끌어안아야... 임종석 비판도 수용"
- ▲ 김경수 전 지사, 민주당에 복당 신청... "포용·통합 실천해야"